

농촌새뜰마을 3년 연속 공모 선정 농촌인력증개사업 본격 운영

전춘성 진안군수 발품 행정으로 사업 선정돼 국비 10억원 확보

진안군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하 농촌새뜰마을사업)에 3년 연속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필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은 2019 마구동지구, 2020 진안을 사암지구, 동향면 하노지구에 이어 올해는 백운면 상백지구가 선정됐다.

원(국비 10, 도비 1, 군비 3, 자부담 1) 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전춘성 진안군수의 발품 행정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 군수는 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 관련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과 국립지리정보연구원 연계 등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및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마을만들기 1번지 진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특히 상백마을 신정고 추진위원장과 신명숙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하는 등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열의가 더해져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백운면 상백지구는 100년이 넘는 고사 풍년제를 이어오는 전통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하천 범람으로 심각한 호우피해를 겪고 있고 노후주택 및 공·폐가가 많아 주민들이 살기에 매우 취약한 마을이다.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립 산림치유원과 연계하여 소득 창출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면, 소멸위기의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국립 산림치유원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상백마을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선정된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개선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무주농협·구천동농협,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위해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 무주농협(조합장 양승욱),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은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증개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협 무주군지부에서 운영하는 '반딧불 영농작업반'은 무주군-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1억3,000만원(군비 1억원, 농협 3,000만원)이다.

세부내용은 농업인에게 교통비, 간식비로 1일 6,000원을 지원하고, 작업반장에게는 통신티비 1,000원을 지원하며, 노동자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2021년에는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도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한 농촌인력 증개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 돼 농협당 사업비 8,000만원(도비, 군비)으로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촌인력증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작업자 교통·수송·숙박비, 현장실습 교육비, 단체상해보험가입 등이 있다.

농촌인력증개사업은 일손필요 농업인과 유희인력을 연결하는 농촌일손

증개를 주업무로 하며, 운영시기는 3월부터 12월초까지이고, 현재 17개 작업반(300여명)을 구성했으며, 올해 추가적으로 유희인력을 확보해 작업반을 더 늘릴 계획이다.

작업내용은 과일 꺾기, 열매숙기, 봉지 싸우기, 수확을 비롯하여 각종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포장 등 전 농작업이 해당된다.

지난 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미입국으로 농촌의 영농인력수급에 차질이 많았는데, 2021년에는 농협 무주군지부,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의 농촌인력증개사업을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증개나 지원은 필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석 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침체된 농촌경제 회복을 위해 무주군과 적극 협력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 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농협 무주군지부(320-3161), 무주농협(322-2295), 구천동농협(324-2506)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적상면, 코로나19로 지친 취약계층 살핀다

무주군 적상면 맞춤형복지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부를 살펴 호평을 듣고 있다.

각종 기탁물품 배부와 함께 취약계층의 현재 정서 파악을 위한 생활상 상담, 건강 상태 점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안내 등 적극 돌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추진할 특화사업을 저소득층 안전을 키워드로 '우리 집 안전하데이(DAY)'로 정하고 안부 확인과 복지·건강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노후 전기선과 콘센트 상태, 그리고 가정 내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독거 어르신에 대한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개학기 대비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불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진안군은 불 개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코로나19 예방수칙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안전신문고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신고 등에 대한 방법을 홍보했다.

특히 불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증가와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방법(신호준수, 좌우 살피기, 달리기 자제) 및 코로나19 안전수칙(손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했다.

전춘성 군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조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많은 관심 또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설천면 '참새와 방앗간' 팀 국토부 장관상 수상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최종 성과보고회서 사업 창업분야 전국 1위

무주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최종 성과보고회에서 사업 창업분야 전국 1위를 차지,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이란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행정, 지역주민이 한 팀으로 이뤄 지역을 활성화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무주군의 '참새와 방앗간'은 귀농인들이 주축이 돼 이뤄진 팀이다. 그동안 무주군 농·특산물 이용한 대표 먹거리 레시피 개발 및 '구천동 쌀' 브랜드를 탄생시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태권도원 시사회 및 설천면 소외계층 빵 나눔회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소통과 향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이외에도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눈꽃 마을 도깨비시장'이 최종 선정이 돼 국·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구천동 쌀 빵을 테마로 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연계해 무주군 관광지 내 도깨비시장 운영과 발효기술 전승, 제품 생산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꾀한다.

오는 12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앞두고 공모를 준비 중인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연



계해 지역주민이 주도가 돼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들 스스로가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차별화된 사업 구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주신 결과"라며 "앞으로 설천면 뿐만이 아닌 무주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길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자살 고위험군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은 4일 '찾아가는 자살예방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자살 의도자를 말하며 대부분 우울증세를 보여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더욱 줄어들고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군은 자살 고위험군의 스토레

스 해소와 마음 안정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1:1로 형태의 개별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투약관리와 함께 심리치유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 된 프로그램은 '냄비 반침' 만들기로 짜여진 나무를 다듬고 광택제를 발라 꽃무늬 장식 판을 붙이면 완성되는 간단한 작품이다.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진행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063-430-8529)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군민감사관 위촉·운영

무주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군민감사관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은 군민감사관은 무주읍 이동철 씨를 비롯해 6개 읍면 15명(읍면별 2~3명)으로, 군민감사관들은 이 자리에서 주요 임무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10% 추가 지원

장수군이 각 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을 10%를 추가 지원한다.

장수군은 4일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지난해보다 10%로 추가 지원해 총 15%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지부담금을 5%로 낮췄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은 당초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를 지원한다. 장수군의 경우 농가부담 경감과 가입농가 확대를 위해 2020년도까지 자부담의 5% 추가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10%를 추가 지원해 농가부담금 20%중 15%를 지원한다. 농가는 자부담 5%만 부담하면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까운 농·축협 등을 통해 방문 가입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